

에도어(江戸語) 명령표현 「しやれ」의 어미 변화에 관한 고찰

김용균*

kygyun@cau.ac.kr

Contents

1. 서론
2. 조사 자료 및 고찰 방법
3. 명령표현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실태
4.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의 전체적인 경향
5.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완료시기
6. 결론

Abstract

本稿では、日本語の歴史の中でも特に消滅という点に注目して近世に焦点を当てて、近世日本語までには用いられたが現代日本語では見られなくなった江戸語の敬語命令表現「しやれ」→「しやい」の語尾変化について、全体的傾向と完了時期を中心に考察してみた。特に明和～享和期の江戸語資料39種(江戸洒落本類31種、江戸咄本類4種、黄表紙類4種)の語尾変化の実態の分析結果に基づいて、上方語と敬語命令表現「なされ」→「なさい」の語尾変化の全体的傾向及び完了時期と比較しながら時期、資料、位相、地域による遅速差とその原因について検討してみた。その結果、幾つかの特徴的事実が明らかになったかのように思う。

まず、語尾変化の全体的傾向としては、①明和期と安政期間における「しやれ」→「しやい」の語尾変化の遅速差が見られる。②江戸語資料の内部間による遅速差が認められて、江戸洒落本類の「しやれ」→「しやい」の語尾変化は江戸咄本類及び黄表紙類の語尾変化よりは早い。③位相的な面から見ると、男性語と女性語間による「しやれ」→「しやい」の語尾変化の遅速差は見られない。④地域的な面から見ると、江戸語の「しやれ」→「しやい」の語尾変化は上方語の語尾変化よりは早い、という事実が指摘できた。

一方、語尾変化の完了時期としては、⑤口頭語、つまり会話文における「しやれ」→「しやい」の語尾変化の完了時期は「なされ」→「なさい」の語尾変化の完了時期である明和期までより遅い安永期と推定される、という事実が指摘できた。

* 중앙대학교 일어학과 조교수, 일본어학

特に、このような事実の中で②③④は「なされ」→「なさい」の語尾変化の傾向と大体一致すると言えようが、①は傾向を異にすると思われる。なお、⑤も「なされ」→「なさい」の語尾変化の完了時期と異なるという点から注目される。

Key Words: 江戸語, 上方語, 語尾 変化, しやれ, しやい(에도어, 가미가타어, 어미 변화, ~하시오.)

1. 서론

일본어 변천사를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고대 일본어에서 현대 일본어까지 문법, 어휘, 음운, 문자, 경어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성, 소멸, 변화가 이루어져 왔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그 중심에는 근세가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소멸이라는 점에서 보면 주목을 끄는 것은, 근세 일본어 경어 명령표현 「飲ま(つ)しやい」「見さ(つ)しやい」「居や(つ)しやい」 등의 「しやい」이다. 이는 원래 「飲ま(つ)しやれ」「見さ(つ)しやれ」「居や(つ)しやれ」 등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しやれよ(い)」→「しやれ」→「しやい」의 변화 과정을 거쳐 성립되었는데, 현대 일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ください」 및 「なさい」와는 달리 근세 일본어까지 사용되다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근세 일본어에서 사용되다 사라진 에도어(江戸語) 경어 명령표현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고찰 시, 에도어의 경우 주목되는 시기는 에도중기 이후 즉, 明和期(1764~1771) 이후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明和期 이전까지는 거의 보이지 않은 에도어자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しやれ」와, 특히 「しやい」의 용례가 비교적 풍부하여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경향과 완료시기의 추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명령표현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에도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湯沢幸吉郎¹⁾,

1) 湯沢幸吉郎(1990) 『増訂江戸言葉の研究』、明治書院、pp.383-390

小松寿雄²⁾, 岩井良雄³⁾ 등의 연구를 들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경우 대부분 제한적인 자료를 이용한 부분적인 용례의 언급 내지는 약간의 기술 정도에 그친 결과, 전체적인 경향 파악과 완료시기의 추정을 위한 분석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에 의거하면서 「しやれ」와 「しやい」의 용례가 나타나는 明和~享和期(1764~1803)의 에도어자료 39종을 조사 대상으로, 에도어에 보이는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실태와 진행 정도, 그리고 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전체적인 경향을 지속(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원인과 어미 변화의 완료시기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미가타어와, 이미 줄고를 통하여 살펴본 바 있는 에도어 명령표현 「なされ」→「なさい」의 어미 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경향(①에도어의 「なされ」→「なさい」의 어미 변화 진행 속도는 가미가타어의 어미 변화보다 빠르다 ②에도어자료 내부 간에 따른 어미 변화의 지속 차이가 인정되어, 에도洒落本類의 「なされ」→「なさい」의 어미 변화 진행 속도는 에도咄本類 및 黄表紙類의 어미 변화보다 빠르다 ③위상적인 면에서 보면 남성어와 여성어 간에 따른 「なされ」→「なさい」의 어미 변화 지속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및 완료시기(구두어 즉, 회화문에 있어서 「なされ」→「なさい」의 어미 변화 완료시기는 明和期까지로 추정된다)⁴⁾와 비교하면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와 같은 고찰은 동종의 에도어 경어 명령표현 「なされ」→「なさい」의 어미 변화의 전체적인 경향 및 완료시기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방언사적 사실 즉, 에도어와 가미가타어의 양어(兩語) 간에 따른 지속 차이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어사(敬語史)와 에도어사(江戸語史)의 체계적인 연구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2) 小松寿雄(1971) 「近代の敬語Ⅱ」 『講座国語史5・敬語史』、大修館書店、pp.350-352

3) 岩井良雄(1974) 『日本語法史・江戸時代編』、笠間書院、pp.148-156

4) 金鎔均(2009) 「江戸語 命令表現 「なされ」의 語尾 變化에 관한 考察」 『日語日文學』 43, 大韓日語日文學會, pp.5-18

2. 조사 자료 및 고찰 방법

2.1 조사 자료

먼저 조사 자료는 명령표현 「しやれ」와 「しやい」의 용례가 나타나는 明和~享和期の 에도어자료[1]~[39]의 39종⁵⁾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립(간행)시기 별로 보면 明和期 자료가 [1]~[4]의 4종, 安永期(1772~1780) 자료가 [5]~[15]의 11종, 天明期(1781~1788) 자료가 [16]~[24]의 9종, 寛政期(1789~1800) 자료가 [25]~[35]의 11종, 享和期(1801~1803) 자료가 [36]~[39]의 4종이다. 또한 자료 별로 보면 에도咄本類가 4종([5][6][7][35]), 黄表紙類가 4종([17][20][27][33])이고, 나머지는 모두 당시 구어자료로서 가치가 높고, 에도어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에도洒落本類⁶⁾로 31종이다. 그리고 조사 텍스트로는, 에도洒落本類는 『洒落本大成』, 에도咄本類는 『噺本大系9』([5])·『岩波日本古典文学大系100』([6][7][35]), 黄表紙類는 『岩波日本古典文学大系59』를 사용하였다. 이하, 본고에서 조사 대상으로 한 에도어자료를 모두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1]『郭中奇譚』(1769) | [2]『遊子方言』(1770) | [3]『辰巳之園』(1770) |
| [4]『俠者方言』(1771) | [5]『楽牽頭』(1772) | [6]『鹿の子餅』(1772) |
| [7]『聞上手』(1773) | [8]『婦美車紫鹿子』(1774) | [9]『甲馴新話』(1775) |
| [10]『妓者呼子鳥』(1777) | [11]『壳花新馴』(1777) | [12]『深川新話』(1779) |
| [13]『馴舎三友』(1779) | [14]『呼子鳥』(1779) | [15]『南客先生文集』(1779) |
| [16]『雲井双紙』(1781) | [17]『見徳一炊夢』(1781) | [18]『卯地臭意』(1783) |

5) 본고에서의 조사 대상인 39종 이외에도, 『两国渠』(1771) 『南閨雜話』(1773) 『金々先生栄花夢』(1775) 『高漫齊行脚日記』(1776) 『郭中掃除雜編』(1777) 『契情買虎之卷』(1778) 『南江馴話』(1778) 『伊賀越増補合羽之童』(1779) 『竜虎問答』(1779) 『鯛の味噌津』(1779) 『世説新語茶』(1772~1780) 『粹町甲閨』(1772~1780) 『御存商売物』(1782) 『大悲千祿本』(1785) 『江戸生艶気樺焼』(1785) 『女郎買之糠味増汁』(1788) 『文武二道万石通』(1788) 『中洲の花美』(1789) 『自惚鏡』(1789) 『繁千話』(1790) 『心学早染艸』(1790) 『北廓鶏卵方』(1794) 『奇談仮根草』(1796) 『傾城買二筋道』(1798) 『手管早引廓節要』(1798) 『恵比良濃梅』(1801) 『三千之紙屑』(1801) 『起承転合』(1802) 『後編遊治郎』(1802) 『妓情返夢解』(1802)를 조사하였지만, 「しやれ」 및 「しやい」의 용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6) 小松寿雄(1985) 『江戸時代の国語・江戸語』, 東京堂出版, pp.59-61

- | | | |
|-----------------------|----------------------|----------------------|
| [19] 『三教色』(1783) | [20] 『莫切自根金生木』(1785) | [21] 『田舎芝居』(1786) |
| [22] 『通言総籙』(1787) | [23] 『一目土堤』(1788) | [24] 『曾我糠袋』(1788) |
| [25] 『南国駅路雀』(1789) | [26] 『志羅川夜船』(1789) | [27] 『孔子編于時藍染』(1789) |
| [28] 『傾城買四十八手』(1790) | [29] 『染拔五所紋』(1790) | [30] 『錦之裏』(1791) |
| [31] 『四ツ谷新宿西遊記』(1791) | [32] 『仕懸文庫』(1791) | [33] 『敵討義女英』(1795) |
| [34] 『名所拜見』(1796) | [35] 『無事志有意』(1798) | [36] 『廓之桜』(1801) |
| [37] 『比翼紫』(1801) | [38] 『穴可至子』(1802) | [39] 『青楼松の内』(1802) |

그리고 이상의 에도어자료와의 비교를 위하여 시기적으로 비슷한 가미가타어 자료[1]~[8]의 8종⁷⁾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성립(간행)시기 별로 보면 安永期 자료가 [1]~[4]의 4종, 寛政期 자료가 [5]~[7]의 3종, 文化期(1804~1817) 자료가 [8]의 1종이다. 또한 자료 별로 보면 가미가타洒落本類가 5종([1][3][6][7][8]), 가미가타歌舞伎脚本類가 2종([2][5]), 浄瑠璃類가 1종([4])이다. 그리고 조사 텍스트로는, 가미가타洒落本類는 『洒落本大成』, 가미가타歌舞伎脚本類는 『岩波新日本古典文学大系95』([2])·『岩波日本古典文学大系53』([5]), 浄瑠璃類는 『岩波日本古典文学大系52』를 사용하였다. 이하, 본고에서 조사 대상으로 한 가미가타어자료를 모두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1] 『浪華今八卦』(1773) | [2] 『伊賀越乘掛合羽』(1776) | [3] 『虚辞先生穴賢』(1778) |
| [4] 『新版歌祭文』(1780) | [5] 『韓人漢文手管始』(1789) | [6] 『裸百貫』(1796) |
| [7] 『身体山吹色』(1799) | [8] 『当世廓中掃除』(1807) | |

2.2 고찰 방법

고찰 방법은 먼저 에도어자료 39종(단, 序·跋은 자료에 따라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상존하기 때문에 고찰 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외한다)의

7) 본고에서의 조사 대상인 8종 이외에도, 『異本郭中奇譚』(~1771) 『妹背山婦女庭訓』(1771) 『風流裸人形』(1778) 『徒然晬か川』(1783) 『浪花花街今今八卦』(1784) 『短歌藥葉』(1786) 『北華通情』(1794) 『晬のすじ書』(1794) 『稗庖丁』(1795) 『うかれ草紙』(1797) 『戲言浮世瓢箪』(1797) 『十界和尚話』(1798) 『阿蘭陀鏡』(1798) 『稗學問』(1799) 『昇平樂』(1800) 『南遊記』(1800) 『当世嘘之川』(1804) 『こゝろの外』(1806) 『窃潜妻』(1807)를 조사하였지만, 「しやれ」 및 「しやい」의 용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여기에서 가미가타어자료가 에도어자료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를 보여, 비교 시 자칫 타당성이 결여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시 가미가타어자료의 부족에 따른 결과에 기인함을 밝혀둔다.

회화문⁸⁾에 등장하는 명령표현 「しやれ⁹⁾」와 「しやい¹⁰⁾」를 모두 추출한 후에, 지속 차이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경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성립시기 별로는 明和期の 자료 4종과 安永期の 자료 11종, 자료 별로는 에도洒落本類 31종과 에도咄本類 4종, 黄表紙類 4종으로, 위상적인 면에서는 남성어와 여성어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에 따른 지속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에도어자료와 가미가타어자료의 분석 결과를 비교함과 동시에, 에도어의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완료시기를 추정하기 위하여 明和期の 자료 4종, 安永期の 자료 11종, 天明期の 자료 9종, 寛政期の 자료 11종, 享和期の 자료 4종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술한 에도어 명령표현 「なされ」→「なさい」의 어미 변화의 전체적인 경향 및 완료시기와 비교하면서 고찰하도록 하였다.

3. 명령표현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실태

에도어 명령표현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明和~享和期の 자료[1]~[39]에 보이는 「しやれ」와 「しやい」의 자료 별 실태를 <표1>로, 가미가타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1]~[8]에 보이는 「しやれ」와 「しやい」의 자료 별 실태를 <표2>로 나타내고, 그리고 <표1>과 <표2>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율을 <표3>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 단, 지문(地文)의 경우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가미가타어자료 8종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지문의 특성상 회화문만큼 경어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여기에서는 「しやれ」는 물론, 「しやれ」계인 「つしやれ」 「さ(つ)しやれ」 「や(つ)しやれ」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10) 여기에서는 「しやい」는 물론, 「しやい」계인 「つしやい」 「さ(つ)しやい」 「や(つ)しやい」 「(つ)せい」 「さ(つ)せい」 「(つ)せへ(エ)」 「さ(つ)せへ(エ)」 「(つ)しやへ(エ)」 「さ(つ)しやへ(エ)」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다만, 본고는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에 관한 고찰인 만큼 湯沢幸吉郎, 전계서(1), pp.386-387에 지적된 「しやい」의 마지막 단계 변화형인 「(さ)つし」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1〉 에도어자료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실태

자 료		어 미		자 료		어 미	
		しやれ	しやい			しやれ	しやい
明 和	[1]郭中奇譚(1769)	3		天 明	[21]田舎芝居(1786)		11
	[2]遊子方言(1770)	1	15		[22]通言絵籬(1787)		7
	[3]辰巳之園(1770)	2	1		[23]一目土堤(1788)		1
	[4]俠者方言(1771)		2		[24]曾我糠袋(1788)		3
安	[5]染牽頭(1772)	1		寛	[25]南国駅路雀(1789)		1
	[6]鹿の子餅(1772)	2	1		[26]志羅川夜船(1789)		11
	[7]聞上手(1773)	1	4		[27]孔子縞于時藍染(1789)		1
	[8]婦美車紫鹿子(1774)		1		[28]傾城買四十八手(1790)		2
	[9]甲駅新話(1775)		4		[29]染抜五所紋(1790)		1
	[10]妓者呼子鳥(1777)		3		[30]錦之裏(1791)		4
	[11]売花新駅(1777)		1		[31]四ツ谷新宿西遊記(1791)		1
永	[12]深川新話(1779)		5	政	[32]仕懸文庫(1791)		2
	[13]駅舎三友(1779)		10		[33]敵討義女英(1795)	1	2
	[14]呼子鳥(1779)	1	25		[34]名所拜見(1796)		1
	[15]南客先生文集(1779)		6		[35]無事志有意(1798)		11
天 明	[16]雲井双紙(1781)		4	享 和	[36]廓之桜(1801)		2
	[17]見徳一炊夢(1781)		1		[37]比翼紫(1801)		1
	[18]卯地臭意(1783)		3		[38]穴可至子(1802)		3
	[19]三教色(1783)		19		[39]青楼松の内(1802)		7
	[20]莫切自根金生木(1785)		3				

〈표2〉 가미가타어자료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실태

자 료		어 미		자 료		어 미	
		しやれ	しやい			しやれ	しやい
安 永	[1]浪華今八卦(1773)	2		寛 政	[5]韓人漢文手管始(1789)	11	
	[2]伊賀越乗掛合羽(1776)	23			[6]裸百貫(1796)	1	
	[3]虚辞先生穴賢(1778)	6			[7]身体山吹色(1799)	18	
	[4]新版歌祭文(1780)	3		文化	[8]当世廓中掃除(1807)	1	

〈표3〉 에도어자료와 가미가타어자료의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율

자 료		어 미		しやれ	しやい	변화율
		회화문	남성어			
에도어자료 39종 (1769~1802)	회화문	남성어	7	142	95.3	
		여성어	5	38	88.4	
		계	12	180	93.8	
가미가타어자료 8종 (1773~1807)	회화문	남성어	58		0	
		여성어	7		0	
		계	65		0	

4.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의 전체적인 경향

전술한 <표1>의 에도어자료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실태와 <표2>의 가미가타어자료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실태, 전체적인 분석 결과인 <표3>의 어미 변화율, 그리고 에도어자료 39종과 가미가타어자료 8종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통하여 인정되는, 에도어에 보이는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의 전체적인 경향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明和期와 安永期 간에 있어서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지속 차이가 보인다.
- ②에도洒落本類의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진행 속도는 에도咄本類 및 黄表紙類의 어미 변화보다 빠르게 나타나, 에도어자료 내부 간에 따른 지속 차이가 인정된다.
- ③위상적인 면에서 보면 남성어와 여성어 간에 따른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지속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 ④지역적인 면에서 보면 에도어의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진행 속도는 가미가타어의 어미 변화보다 빠르다.

먼저 경향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술한 <표1>을 토대로 明和期の 자료 4종과 安永期の 자료 11종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분석 결과를 <표4>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 明和期 자료와 安永期 자료의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율

자료	어미		
	しやれ	しやい	변화율
明和期 4종(1769~1771)	6	18	75.0
安永期 11종(1772~1779)	5	60	92.3

경향①은 <표4>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明和期 자료와 安永期 자료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보이는 만큼 전체적인 경향으로서 인정된다 하겠다. 예를 들

면 安永期 자료의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율(92.3%)은 이미 완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明和期の 어미 변화율(75.0%)보다 높게 나타난다. 좀 더 객관적인 비교 즉, 후술하는 경향②와 같이 에도어자료 내부 간에 따른 어미 변화의 지속 차이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도洒落本類만의 비교도 필요하다고 본다. 전술한 <표1>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安永期の 에도洒落本類 8종([8][9][10][11][12][13][14][15])의 어미 변화율(98.2%)은 明和期の 에도洒落本類 4종([1][2][3][4])의 어미 변화율(75.0%)보다 우위를 보여, 오히려 지속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역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경향①은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원인은 시간적인 추이(推移)에 따른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후술하는 완료시기의 추정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①의 반영 즉, 明和期和 安永期 간에 있어서 지속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安永期の 자료 ([14])에는 「しやい」가, 明和期の 자료([3])에는 「しやれ」가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 梅大夫 とわしやれとわしやれ (辰巳之園, 380上15)

[14] 馬ご あんだねほけたそうだ……はやくおきさつしやいばあ様が山下へいぎたいといふんだからはやくいがねへとおやました見ることがかなわぬから
 それではやくいかつせといかつせいといふこんだはい (呼子鳥, 265下8)

그리고 경향②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에도어자료 내부 간에 따른 분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전술한 <표1>을 토대로 동종 자료인 에도洒落本類 31종과 에도咄本類 4종 및 黄表紙類 4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5>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5> 에도어자료 39종의 자료에 따른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율

자 료 \ 어 미	しやれ	しやい	변화율
[A]에도洒落本 31종(1769~1802)	7	157	95.7
[B]에도咄本 4종(1772~1798)	4	16	80.0
[C]黄表紙 4종(1781~1795)	1	7	87.5

경향②는 <표5>를 통하여 자료[A]의 진일보한 양상을 엿볼 수 있는 만큼 전체적인 경향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자료[A]의 어미 변화율(95.7%)은 자료[B]의 어미 변화율(80.0%) 및 [C]의 어미 변화율(87.5%)보다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기 때문이다. 좀 더 객관적인 비교 즉, 전술한 <표1>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자료[B]와 [C]가 모두 安永~寛政期(1772~1800)의 자료인 점을 고려하면, 자료[A]를 포함하여 安永~寛政期の 성립 자료만의 비교도 필요하다고 본다. 역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료[A]의 어미 변화율(99.2%)은 자료[B]의 어미 변화율(80.0%) 및 [C]의 어미 변화율(87.5%)보다 우위를 보여, 경향②를 더욱 뒷받침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향②의 반영 즉, 江戸洒落本類에 「しやい」가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4] かいる鳴……茂久左エ門殿の所はたしかこゝらだつきやアとをたゝいてみ
べいおきさつしやエおきさつしやエ(呼子鳥, 265上9)

[15] 春 ゑへはな^{へら}這入つせへ……エゝうつちやつて^{おか}置つせへな(南客先生文集,
106下8)

[21] 見物 コレコレこゝへひゑだんごのうくれさつせへ。おれにはあめんぼうのう
^{くれ}呉さつせへ。(田舎芝居, 318下9)

그렇다면 자료[A]와 [B] 및 [C] 간에 있어서 지속 차이가 보이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에도洒落本類의 자료성 즉, 에도咄本類와 黄表紙類보다 구두어적인 성격이 강한 데 기인하는 것¹¹⁾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경향②는 「なされ」→「なさい」의 어미 변화 경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상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경향③은 전술한 <표3>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가미가타어자료의 경우 남성어와 여성어의 어미 변화율(0%)이 동일한 가운데, 에도어자료의 경우는 남성어의 어미 변화율(95.3%)이 여성

11) 金銘均, 전계서(4), p.13

어의 어미 변화율(88.4%)보다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난다. 전술한 <표1>을 토대로 좀 더 객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동종 자료인 에도洒落本類 31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6>으로, 明和期 자료와 安永期 자료에 「しやれ」가 편중되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明和期の 자료 4종과 安永期の 자료 11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표7>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6> 에도洒落本の 남성어와 여성어의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율

성 별		어 미	しやれ	しやい	변화율
		에도洒落本 31종	남성어	4	124
여성어	3		33	91.7	

<표7> 明和期 자료와 安永期 자료의 남성어와 여성어의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율

성 별		어 미	しやれ	しやい	변화율
		明和期 4종 (1769~1771)	남성어	4	9
여성어	2		9	81.8	
安永期 11종 (1772~1779)	남성어	2	41	95.3	
	여성어	3	19	86.4	

먼저 에도洒落本類의 분석 결과인 <표6>을 보면 전체적인 분석 결과인 <표3>과 비슷한 양상 즉, 남성어의 어미 변화율이 여성어의 어미 변화율보다 오히려 약간 우위를 보인다. 또한 성립시기 별로 분석한 <표7>을 보면 明和期の 경우 여성어의 어미 변화율에서 우위를, 安永期の 경우 남성어의 어미 변화율에서 우위를 보여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남성어와 여성어 간에 있어서 뚜렷한 지속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향③을 뒷받침한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일본어사적 경향¹²⁾ 즉, 여성어의 변화 속도는 남성어의 변화보다 빠르다는 사실과 다른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しやれ」라는 경

12) 일반적으로 二段活用動詞 및 助動詞의 一段化, 四段活用動詞(「飽く」「借る」「染む」「足る」)의 上一段化, サ行変格活用複合動詞의 上一段化 등 대부분의 활용형식 변화의 경우, 여성어의 변화 속도는 남성어의 변화보다 빠르다고 일컬어진다.

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어표현은 남성과 여성의 의식 속에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어 ラ行下二段活用 (「おつしやるる」「くださるる」「しやるる」「なさるる」「めさるる」)의 四段化의 경우, 남성어와 여성어 간에 따른 지속 차이는 보이지 않는데¹³⁾, 이는 위의 사실과 깊게 결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경향③은 「なされ」→「なさい」의 어미 변화 경향과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면에서 지속 차이가 보이는 경향④는 전술한 <표3>을 통하여 특징적인 경향으로서 인정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에도어자료의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율(93.8%)은 가미가타어자료의 어미 변화율(0%)¹⁴⁾보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향④의 반영 즉, 에도어와 가미가타어 간에 따른 지속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에도어자료([18][19][39])에는 「しやい」가, 가미가타어자료([2][7])에는 「しやれ」가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三十郎(孫八)……これ、物^{もの}を言^いわつしやれ。唾^{おし}か、糞^{つぼ}か。物言^いわしやれ。

(伊賀越乗掛合羽, 233-7)

[7]急^{きつと}度^{しやうばい}した商^{はじ}売^{また}を初^{むす}めさしやれ又息^{また}子^{むすこ}殿^{どの}は一^{きりやう}器^き量^{りやう}ありげな人^{ひと}なれば早^{はや}う嫁^{よめ}女^{じよ}を

13) 金銘均(2007) 「江戸中期 이후 上方語에 나타나는 ラ行下二段活用 의 四段化現像에 관한 考察」 『日本學報』 71, 韓國日本學會, pp.12-13

14) 실제로 시기적으로 늦은 文政~天保期(1818~1843)의 가미가타어자료 2종을 조사 대상으로 회화문을 분석한 결과, 모두 「しやれ」로 나타내고 「しやい」는 1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色深狭睡夢』(1826)에 「しやれ」가 1례, 『鳩翁道話』(1835)에 「しやれ」가 4례 등장한다. 이 외에도 文政~弘化期(1818~1847)의 가미가타어자료인 『箱まくら』(1822) 『花街風流解』(1824) 『北川蜺殻』(1827) 『風俗三石土』(1844)를 조사하였지만, 「しやれ」 및 「しやい」의 용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湯沢幸吉郎(1982)의 『徳川時代言語の研究』(風間書房, p.303)에 지적된 『菅原伝授手習鑑』(1746) 및 『三十石體始』(1759)에 보이는 다음 용례는 당시 매우 드문 것으로 귀중한 용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自慢で売弘める桜飴を買はつしやい(菅原伝授手習鑑, 第二)

○姫君のよいお慰み、[力持^ちは]是へ通さつしやい(三十石體始, 序)

むかへて遣らし^やしやれ(身体山吹色, 62上13)

[18] 橋番 何をそぞうしいエ、是^{これ}はおめへがた^み見るものじやアねへ^{とお}通らし^やへ通らし^やへ(卯地臭意, 206上11)

[19] 孔子 御太儀御太儀コレ息子^{むすこ}モウ何時^{なん}だと思^おふおき^きつせ^へおき^きつせ^へ
(三教色, 123上17)

[39] 松……よくかんげへて見^みきつせ^へ。……おもいなんすだろふから。うつちやつておかつ^せへよ(青楼松の内, 363下1)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경향④는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에도어와 가미가타어 간에 있어서 지속 차이가 보이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에도어의 변화 속도가 가미가타어의 변화(二段活用動詞 및 助動詞의 一段化, ナ行変格活用動詞의 四段化, サ行変格活用複合動詞의 上一段化, ラ行下二段活用の 四段化 등)보다 빠르다는 활용형식의 변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도 「なされ」→「なさい」의 어미 변화와 마찬가지로, 에도와 가미가타라고 하는 지리적 배경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속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에도어의 경우 가미가타(京都・大阪)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당시 가미가타어의 영향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⁵⁾.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경향④는 「なされ」→「なさい」의 어미 변화 경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완료시기

여기에서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완료시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각 자료의 성립시기에 따른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전

15) 金銘均, 전계서(4), p.12

술한 <표1>을 토대로 각 자료의 성립시기에 따라 明和期 자료 4종과 安永期 자료 11종, 天明期 자료 9종과 寛政期 자료 11종, 그리고 享和期 자료 4종의 분석 결과를 <표8>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8> 에도어자료 39종의 성립시기에 따른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율

자 료 \ 어 미	しやれ	しやい	변화율
[A]明和期 4종(1769~1771)	6	18	75.0
[B]安永期 11종(1772~1779)	5	60	92.3
[C]天明期 9종(1781~1788)		52	100
[D]寛政期 11종(1789~1798)	1	37	97.4
[E]享和期 4종(1801~1802)		13	100

<표8>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자료[A](75.0%), [B](92.3%), [D](97.4%), [C](100%)·[E](100%)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각 자료의 성립시기에 따라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율 증가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이는 시간적인 추이에 따라 어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료[C]와 [D]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데, 이는 이미 완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나타나는 우연한 결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좀 더 객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동종 자료인 에도洒落本類 31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9>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9> 에도洒落本の 성립시기에 따른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율

자 료 \ 어 미	しやれ	しやい	변화율
[A]明和期 4종(1769~1771)	6	18	75.0
[B]安永期 8종(1774~1779)	1	55	98.2
[C]天明期 7종(1781~1788)		48	100
[D]寛政期 8종(1789~1796)		23	100
[E]享和期 4종(1801~1802)		13	100

<표9>를 보면 <표8>보다 좀 더 일목요연한 결과로 나타난다. 각 자료의 성립시기에 따라 자료[A](75.0%), [B](98.2%), [C](100%)·[D](100%)·[E](100%)의 순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8>과 <표9>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자

료[B]에 보이는 어미 변화율이다. 자료[A]의 어미 변화율과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이미 완료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통하여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는 安永期에 완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추정의 반영 즉, 安永期の 자료 ([12][14][15])에 「しやい」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완료 양상을 보이는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2] そ……そしてお火鉢^{ひばち}をもはやく^{もつ}持て来^きさつせへ……おたばこぼん^{もつ}を持って来
さつせへ(深川新話, 218上5)

[14] 馬ごなにおつかないことがあるもんだそのらつしやへ^{もつ}どうどうどうなん
でも江戸へいぐといろいぎやうなものがゑらうあるぞみさつしやい
(呼子鳥, 266上3)

[15] 春おへねへとんちきだのえ、今にいくといはつせへ……さういはつせへよッ
(南客先生文集, 106下15)

이와 같은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에도어의 경우, 구두어 즉 회화문에 있어서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완료시기는, 「なされ」→「なさい」의 어미 변화 완료시기인 明和期까지보다 늦은 安永期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여기에서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와 「なされ」→「なさい」의 어미 변화 간에 있어서 지속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예문이 明和期の 자료에 보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茶かんをもッとあつくして上ましなさい(郭中奇譚, 302上6)

茶コレかこの衆声してやらッしやれ(상동, 307上4)

[2] 通り者たはこ入は掘安^{おん}で見て置た。とんだいやよいさらさがある。それを。こ
しらへ。さつしやれ。(遊子方言, 352上13)

通り者なんにもしろ。挑灯^{ちやうちんつけ}付さしてくんなさい(상동, 357下2)

자료[1]은 茶, [2]는 通り者라는 동일 인물에 의한 예문으로,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완료시기가 「なされ」→「なさい」의 어미 변화 완료시기보다 늦

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로 판단된다.

6. 결 론

현대 일본어는 고대 일본어에서 생성, 소멸, 변화의 과정을 거쳐 발달하여 왔다. 특히 시대적으로 보면 그 중심에는 근세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일본어의 소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근세 일본어에서 사용되다 사라진 에도어 경어 명령표현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에 대하여, 전체적인 경향과 완료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明和~享和期の 에도어자료 39종(에도洒落本類 31종, 에도咄本類 4종, 黄表紙類 4종)의 어미 변화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미가타어와, 특히 경어 명령표현 「なされ」→「なさい」의 어미 변화와 비교하면서 시기, 자료, 위상, 지역에 따른 지속 차이와 그 원인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의 전체적인 경향과 완료시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지적할 수 있었는데, 먼저 「なされ」→「なさい」의 어미 변화의 전체적인 경향과 대체로 일치하는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도洒落本類의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진행 속도는 에도咄本類 및 黄表紙類의 어미 변화보다 빠르게 나타나, 에도어자료 내부 간에 따른 지속 차이가 인정된다.

둘째, 위상적인 면에서 보면 남성어와 여성어 간에 따른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지속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셋째, 지역적인 면에서 보면 에도어의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진행 속도는 가미가타어의 어미 변화보다 빠르다.

그리고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고찰을 통하여 새롭게 확인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明和期和 安永期 간에 있어서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지속 차이가 보인다.

둘째, 구두어 즉, 회화문에 있어서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 완료시기는 「なされ」→「なさい」의 어미 변화 완료시기인 明和期까지보다 늦은 安永期로

추정된다.

결국,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하여 「しやれ」→「しやい」의 어미 변화는 시기, 자료, 에도어와 가미가타어 간에 따른 다양한 지속 차이를 보이면서 진행되었다는 점과 위상 즉, 남성어와 여성어 간에 따른 지속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なされ」→「なさい」의 어미 변화와의 공통점 및 차이 점도 알 수 있었는데, 차이점을 중심으로 보면 「しやれ」→「しやい」의 경우, 明和期和 安永期 간에 있어서 어미 변화의 지속 차이가 보인다는 점과 어미 변화의 완료시기가 「なされ」→「なさい」의 어미 변화 완료시기인 明和期까지보다 늦은 安永期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금후는 이와 같은 고찰을 토대로 경어사 및 에도어사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현대 일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어 명령표현 「ください」의 원류 즉, 「くだされ」→「ください」의 어미 변화의 전체적인 경향과의 일치 여부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岩井良雄(1974) 『日本語法史・江戸時代編』、笠間書院、pp.148-156
- 小松寿雄(1971) 「近代の敬語Ⅱ」 『講座国語史5・敬語史』、大修館書店、pp.350-352
- _____ (1985) 『江戸時代の国語・江戸語』、東京堂出版、pp.59-61
- 湯沢幸吉郎(1982) 『徳川時代言語の研究』、風間書房、p.303
- _____ (1990) 『増訂江戸言葉の研究』、明治書院、pp.383-390
- 金鎔均(2007) 「江戸中期 이후 上方語에 나타나는 라行下二段活用の 四段化現像에 관한 考察」 『日本學會』 71, 韓國日本學會, pp.12-13
- _____ (2009) 「江戸語 命令表現 「なされ」의 語尾 變化에 관한 考察」 『日語日文學』 43, 大韓日語日文學會, pp.5-18

- ❖ 투고일 : 2009. 6. 30
- ❖ 심사일 : 2009. 7. 16
- ❖ 심사완료일 : 2009. 7. 28

「国語学」から「日本語学」へ

任榮哲*

yim1120@cau.ac.kr

Contents

- 1.はじめに
2. 「国語」という言葉
3. 「国語学」か「日本語学」か
4. 「国語学」から「日本語学」へ
5. 日本語研究の新しい視点
6. おわりに

Abstract

日本人が使っている「国語」という言葉は、歴史の経過の中で完全に日常語として定着しており、愛着を抱く日本人も少なくない。また「国語学」の研究者の間にも、伝統ある「国語学」という名称を国際化の呼び声に乗って軽々しく変更するには忍びないという守旧的な意見があると聞いている。しかしながら、このような研究者の心性の奥底には、「国語学」は日本で独自に発展を遂げた日本特有の学問であり、したがって〈ソト〉の潮流からは超然としていられるという先入観が存在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

国際社会における日本、ひいては日本語の位相は、以前とは較べものにならないほど、その影響力を増している。そしてグローバル化の潮流の中で、海外の人々が日本語や日本人と交流する機会は、今後ますます増大すると考えられる。昨今、日本語教育や日本語研究は、日本国内のみならず、海外でも盛んに行なわれている。また海外研究者の業績の中には、伝統的な「国語学」の方法では発想されないような斬新なものも少なくない。日本語を個別言語として相対化して把握する視点に立つことにより、日本語に対する知見が深化するという傾向は、近年特に、顕著である。

21世紀を迎え、至るところでパラダイムの転換が求められ、国際社会は各方面でダイナミックに流動している。日本の「国語学」が伝統的に対象としてきた学問領域を尊重しつつも、ある時は伝統から自らを解放し、他領域とも活発に交流することにより、より包括性に富んだ研究が可能となるだろう。旧來の学問領域を墨守し狭い殻に閉じこもるだけに終わらない、世界に向けて開かれた日本語の〈学〉の建設を目指したいものである。

* 중앙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어학 전공

Key Words : 国語、「国語学」、国語学会、日本語学

1. はじめに

日本の「国語学会」(The Society for Japanese Linguistics)は、「国語研究ノ進展ト連絡ヲ図ルヲ以テ目的トス」という趣旨の下で、太平洋戦争の最中である1944年3月30日、橋本進吉(1882-1945)博士の提唱により創立された。

創立当初は、時勢の影響もあり活発な活動を行い得なかったが、敗戦後の1946年6月1日、第1回の講演会が東京大学で開催された。そして1948年10月30日には、学会の機関誌『国語学』(Studies in the Japanese Language)の刊行を見るに至った。機関誌『国語学』の発刊の辞には、

明治以来、種々雑多な系統の上に成立し、まだ全体として体系を成すに至らなかった国語学会に体系的な組織を求め、国語学展開の根本理論を確立して、近時漸く問題になりつつある国語の実践部面の発展に即応して、国語学の再出発を期そうとする国語学会の反省と、自己批判とに基づくものである。

とあり、従来の研究に対する反省の上に立って新しい体系を作ろうという意気込みが述べられている。学会の創立以来、現在までには数々の紆余曲折があったことと推察されるが、多くの研究者たちの弛まぬ努力によって、今日優れた研究業績が蓄積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に伝統と数々の実績を誇る国語学会が、現在、その基盤を問われ始めている。つまり日本の「国語」(national language)という発想や「国語学」という学問領域が、従前通り自明のものとは見なされなくなりつつある状況が出来しているのだ。

本稿では、日本の「国語」という概念がどのように形成され、どのように展開していったかという問題や、そして日本の「国語学」という学問が抱え持つ問題などについて考察し、さらには研究の今後の在り方を展望、日本の「日本語学会」(ここでは、2004年1月の「国語学会」の改称による)に対する希望などについて、日

本語を母語としない一外国人研究者の立場から述べることとする。

2. 「国語」という言葉

北原保雄(1993)によれば、「国語」という言葉は、江戸時代の中ごろから使用されるようになり、最初は「漢語」に対しての「和語」(やまとことば)を意味し、「日本語」全体を指す言葉ではなかったようである¹⁾。だが、近代に入り、明治20(1887)年代になると「国語」という言葉は、「国家」「国民」という優れて近代的な概念と密接に結びつく形で、まずアカデミズムの領域で変貌を遂げることになる。つまり「国家」の基盤としての、あるいは「国民」の紐帯としての「国語」という、政治的意味合いが濃厚になるのである。

上田万年(1867-1937)は、ドイツの言語学者H・パウル(1846-1921)の研究²⁾などを持ち帰り、日本に近代言語学を移植し、根づかせた功労者であるが、反面、国(家)語イデオロギーの普及を計ったオピニオンリーダーでもあった。その著書『国語のため・第一』(1895)の扉に記されている「国語は帝室の藩屏なり国語は国民の慈母なり」という言葉は、上田万年の国語観を端的に象徴するものとしてよく知られている。

もっとも、このような国語観は、一人上田万年に限らず、強弱の差はあれ、関根正直(1860-1932)、大槻文彦(1847-1928)、松下大三郎(1878-1935)などにも共通して観察される³⁾。

1) 北原保雄(1993)による。なお、名称のことは清水康行(2000)に詳しい。以下、引用すると次のようである。

『国立国会図書館蔵書目録』で刊年を示す中では、那珂通世『国語学』(1889-91)と岡倉由三郎『日本語学一斑』(1890)が、それぞれの名を持つ最も早いものである。『早稲田大学図書館編明治期刊行物集成』には、堀秀成『日本語学階梯』(1877)がある(国語学会(1980)では、堀が「日本語学」の最初、岡倉が次ぐが、「国語学」の方は、那珂は載らず、関根正直『国語学』(1891)が最初)。両者とも、1890年前後に一般化する呼称と言えよう。

2) 心理言語学的な立場から個人の言語観察を重要視し、言語史の諸問題を扱うに当たって現代語の研究を出発点としたことにある。なお、これは上田万年らの紹介によって明治時代の国語学界にもかなりの影響を与える。

3) 仁田義雄(1995)によると、関根正直が『国語学』(1891)の緒論で「国語は国民一統に貫通し、外

以後、このような「国民国家」を前提とした立場からの「国語」の規定が主流となり、明治33年(1900)、小学校令施行規則が改正され、小学校に教科としての「国語」科が設けられる。そして単に教科名にとどまらず、「国語」科が普及を計った<標準的な日本語>も「国語」と呼ばれるようになるのである。このような傾向は、学校制度の浸透とともに一般化し、広く普及・定着して今日に至っている⁴⁾。

以上の説明からも理解されるように、今日常識化している「国語」という概念は、アプリアリに存在するものではなく、明治期(1868-1912)における近代国家の成立とともに誕生したものである。この点については、すでに多くの研究者からのご指摘がある⁵⁾。また政治性や歴史性のほかにも、「国語」という言葉の使用には、次のような問題点も指摘できる。断るまでもなく、「国語」は「日本語」という個別言語をそのまま指し示す概念ではない。国の数だけ、あるいはそれ以上の「国語」があるという極めて当たり前の事実が、「国語」を冠した「国語学」という学問領域では見失われてはいないだろうか。

換言すれば、「国語学」の研究者が自らの研究対象を個別言語学として相対化できずに、一種の閉鎖性に落ち込んでしまう可能性が少なくないのである。このことは、日本語を母語としない筆者のような外国人研究者には、「国語学」という名

邦に対して、我が同胞一体の感覚を喚起する、本邦特有の現象にして、国語の一定せるは国家の独立たるを代表するに足るべく、斯学の盛衰は、(中略)国勢の消長、国民の元気にも大に関係するものぞかし。」と述べているが、同様の国語観は、強弱の差はあっても、大槻文彦の『言海』(1891)の刊行にあたっては、松下大三郎の『日本俗語文典』(1901)の刊行にあたっては、観察されるという。

- 4) ちなみに、韓国は、韓日併合(1910)の直前に「国語」という言葉をそのまま受け入れて、使い始め、現在も国定教科書の科目名として「国語」が使われている。韓国では、「国語」や「国語学」に関する議論はそれほど盛んではなく、「韓国語」という言葉を使うことはあっても、「韓国語学」のような概念はなじまないのが現状であ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では「朝鮮語」という名称を使っているという。
- 5) 従来、「国語」という言葉は、種々の意味に用いられてきた。京極典一(1996)からその用法を分類すると、次のようである。
 - (1)ある一国の言語、ないしは、公用語的、国家語的な性格の言語を指す用法
 - (2)日本人が自国語としての日本語を指す用法、およびそれに関連する用法
 - (イ)日本語の総体的なもの、共通語的なものを指す用法。ただし、語彙・文体等の個別的要素に重点を置く場合も含む。
 - (ロ)教科名を指す用法
 - (ハ)和語を指す用法

称自体が一つの障壁をなしているという事実にも照らしても明らかだと思われる。

一方、「日本語学」という名称は、「国語」の持つ「国粹主義的」、「民族主義的」なニュアンスを解消し、「国際的」な視野に立った名称として考えられているようである。他の分野の方から国語学という名称に対して与えられた批判はそれであり、国語学という名前の講座が「国際化」の名目で、日本語学とかわる場合もあったのである。

関連して、現在、日本国内の大学における学科名としては「国語国文学科」と「日本語日本文学科」などがあるが、海外からの留学生は「国語国文学科」という学科名や「国語学」という科目名には、違和感を抱くことは、当然であると思われる⁶⁾。

ちなみに、現に、韓国では「国語」といえば「韓国語」を意味する。また1959年に創立された『国語学会』(The Society of Korean Linguistics)もあり、『国語学』(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1962年創刊)という機関誌もある。学科名も「国語国文学科」で、日本と全く同じ名称を使っている。「韓国語韓国文学科」を名乗っている大学は、非常に少ないのが現状である。

3. 「国語学」か「日本語学」か

確かに、「国語」か「日本語」かという名称選択の問題は、すぐに解決できるような単純なもの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実際、「国語」という言葉は、歴史の経過の中で完全に日常語として定着しており、「国語」という名称に愛着を抱く日本人も少なくない。「国語学」の研究者の間にも、伝統ある「国語学」という名前を国際化の呼び声に乗って軽々しく変更するには忍びないという意見があると聞

6) 宮島達夫(1994)は、大学の学科名として「国語国文学科」と「日本語日本文学科」について『全国大学一覧』から、その変化を追っている。

調査結果によると、1953年には大部分が「国語国文学科」だったが、1993年には「国語国文学科」と「日本語日本文学科」がほとんど同数になっている。特に、注目すべき点は新設された大学で、「国語国文学科」を名乗った学科は一つもなく、「国語国文学科」は比率だけでなく、絶対値でも減りはじめたという。

いている。

しかしながら、このような研究者の心性の奥底には、「国語学」は日本で独自に発展を遂げた日本特有の学問であり、したがって〈ソト〉の潮流からは超然としていられるという先入観が存在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国際社会における日本、ひいては日本語の位相は、以前とは較べものにならないほど、その影響力を増している。そしてグローバル化の潮流の中で、海外の人々が日本語や日本人、日本文化と交流する機会は、今後ますます増大すると考えられる。

事実、日本語教育や日本語研究は、日本国内に限らず、海外でも盛んに行なわれている⁷⁾。そして海外研究者の業績の中には、伝統的な「国語学」の方法では発想されないような斬新なものも少なくない⁸⁾。それらには、当然「国語学」より「日本語学」という名称が使用される。日本語を個別言語として相対的に把握する視点に立つことにより、日本語に対する知見が深化するという傾向は、近年特に、顕著である。

たとえば、囲碁や柔道がすでに日本の独占でなくなっているように、日本語は日本人だけのものではない。今や世界の人々のものになったと言えよう。そして日本語に外側から新しい光を当てることによって日本語の真相が明らかになる事実は、特に重視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と考える。

このような「日本語学」の動向とは対照的に、「国語学」の研究領域を概観すると、「国学」⁹⁾の伝統が根強く存在していることに改めて驚かされる。国際的な環境の変化や潮流とは関係なく、従来の研究のスタンスを固守しようとする研究者も珍しくない。「国語学」という学問が、とかく日本国内における研究を重視

7) 日本の国際交流基金が行ってきた「海外日本語教育機関調査」の結果によると、2006年現在、全世界の133ヶ国で、機関数13,639機関、教師数44,321人、学習者数2,979,820人が日本語を習っているという。

8) 2年毎に海外における日本語研究の現状を展望する『日本語の研究』の「展望」号を参照されたい。特に、韓国における日本語研究の現状については、李漢燮(2002)に詳しい。なお、社会言語学の分野については、任栄哲(2009)を参照されたい。

9) 狭義には、徳川時代後期の、当時の学問尊重、漢学における古学復興の機運の中にあって、中世的な因襲を離れ、日本的な自覚に立って、古語の根拠ある研究成果によって古典を理解し、日本人としての規範、古道を確立しようとした学派を指す。研究の立場、古語の研究の仕方、古典の選び方、規範の立て方、内容などによって、学者の傾向が異り、後世の評価も異っている。

し、なかなか海外の研究成果や研究動向に注意を向けようとしなかったことは、遺憾ながら、否めない事実であった。しかし旧弊な伝統とは反対に、より柔軟性に富むそれとは別の伝統も「国語学」には厳然として存在するのである。

4. 「国語学」から「日本語学」へ

戦前は、「国語学」研究の本義は、国語史研究だとする風潮が強かった。だが、1945年の敗戦によって既存の権威や価値観が崩壊し、また海外の言語学研究の刺激などもあり、新しい視点・方法論の導入や、研究対象の拡大が比較的容易になった。戦前は、あまり顧みられなかった共時態、しかも現代語の研究が脚光を浴びるようになったことは、特筆に値する。

近年では、計量国語学、コンピュータ言語学、社会言語学、認知言語学といった新しいアプローチも行なわれている。「国語学」の中にも変革の流れは、確実に存在しているのである。過去の研究を尊重すべきことは当然だが、それに縛られない新しい新鮮な視点で日本語を見ていくことが必要ではないか、と感じる。

もちろん、「国語学」と「日本語学」との間にあるギャップと無理解を解決するのは容易ではあるまい。けれども学問の深化という大義のためには、このまま擦れ違いを続けるわけにはいかない。相互に刺激しあい、見せかけの対立を発展的に止揚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従来から「国語学」の名称で行われてきた研究も、近年「日本語学」の名称で行われている研究も、同じ「日本語」を対象とした学問であるということは、争われない事実なのだからである。この日本語を対象とする個別言語学というコンセンサスに立脚すれば、あるいは「国語学」という些かエスノセントリックな名称も改称されるべきだと思われる。

このような時勢から、学会や機関誌の名称変更のため、多くの議論が交されたが、いよいよ2004年1月、『国語学会』は改称して『日本語学会』(英訳は、『国語学会』と同様に、The Society for Japanese Linguistics)となるのである。そして機関誌の新名称は、2004年理事会原案を作成し、5月22日に実践女子大学

において行われた評議委員会において、この原案が賛成多数で可決される¹⁰⁾。

よって、2004年、第55巻第4号(通巻219号)で『国語学』の誌名としては終刊となり、いよいよ2005年『日本語の研究』(英訳は、『国語学』と同様に、Studies in the Japanese Language) 第1巻第1号(『国語学』通巻220号)を刊行することとなる。創刊されて55年になる伝統ある『国語学』という誌名が終わることには、感慨を覚えざるを得ない。

5. 日本語研究の新しい視点

21世紀を迎え、至るところでパラダイムの転換が求められている。国際社会は各方面でダイナミックに流動している。「国語学」が伝統的に対象としてきた学問領域を尊重しつつも、ある時はそこから自らを解放し、他領域と活発に交流することにより、より包括性に富んだ研究が可能となる。伝統的な学問領域を墨守し、狭い殻に閉じこもるだけに終わらない、世界に向けて開かれた日本語の<学>の建設を目指したいものである。

前節でも述べたように、研究領域が広がるとともに、それぞれの領域を専門とする研究者が養成され、「国語学」(日本語学)の分化、専門化が促進された。各領域ごとに研究は深く進められているが、それだけに一方、これらを総合することが必要となってくる。この総合機関として、「日本語学会」の役割は大きいと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語学会も、従来通りの方法を遵守するだけでは時代の流れに対応しきれないことは明らかである。

10) 当時の日本語学会会長前田富祺(2004)に名称変更に関する経緯が載っているので、以下に引用する。

日本語学会機関誌の新名称を、『日本語の研究』とする。

<選定の経緯・説明>

理事会では、先に提示した以下の原則に基づき、検討を行ってきました。

1. 学会名称の変更に伴い、機関誌名も新しい名称に改める。
2. 既存の雑誌名と同一のものは避ける。
3. 番号は、新誌名の時点より、第1巻1号とするが、『国語学』からの継続性を示すため、『国語学』以来の通巻を併記する。

さらにこれと関連して、徳川宗賢(1998)は、学問領域などについて触れたことがあるが、非常に示唆に富んでいるので、以下概略する。

既成の諸学問領域は厳然として存在し、それを積極的に盛り立てていこうとする人があるのも事実である。また、学問領域ごとに学問研究に対するスタンスが微妙に違っているのも事実である。しかし、異質なものととの共生の可能性を確信し、工夫と努力を積み重ねることによって、困難は克服できると思う。日本語学会が多彩さを維持し、もって日本語学の発展に寄与することを切に願っている。

6. おわりに

新しい時代における日本語学会の更なる発展を考える時、海外での研究を十分理解し、海外研究者との学問上の交流・提携を活発にし、今後、この分野の研究基盤を世界に広め、日本国内の研究者にも新たな視点を広げることを目指してほしいという願望から、僭越ながら、ここでは私見によって五つほどの柱を立てて、提案を行いたい。

第一は、機関誌『日本語の研究』第5巻第2号(『国語学』通巻第237号、2009年4月発行)までに総1,797本の論文と短文が載っている。そのうち、外国籍の研究者の論文と短文は、僅か2.5%の45本である。国際化という大きな流れから考えると、外国人研究者の掲載論文の数が少なすぎ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今まで海外からどのくらいの投稿があったのかについてははっきりはわからないが、推察するには、投稿はさほど多くはないと思う。査読の厳しきや論文のレベルの維持の問題などさまざまな問題が絡んでいるので一概には言えないが、外国人研究者の投稿をもっと積極的に督励すべきであろう。

第二は、「日本語学会」の機関誌である『日本語の研究』が国際専門学術誌(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 や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に đăng載さ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は海外の日本語研究者にはかなり不利である。韓国の場合を例にとると、国際専門学術誌への論文の掲載数が研究者の研究成果の評価はもちろん、給料や昇給の算定の資料となる場合が多く

なったからである。海外の日本語研究者の士気の鼓舞や、底辺の拡充、さらには『日本語の研究』における成果をもっと世界に向けて発信するためにも、なるべく早い時期に国際専門学術誌への登載を行っていただきたい。これと関連して、機関誌『日本語の研究』はすでに目次と要旨は英語のものが載っているので、これ以上、外国語の不得意な日本人研究者の負担を増やしてまで、日本語の不得意な日本語研究者にサビースする必要はないという意見もあり得ると思われるが、そこを乗り越えて日本語を世界の言語の中におき、研究成果を世界に向けてより積極的に発信するためには、残念ながら、発表言語の中に英語を入れるべきだと思う¹¹⁾。

第三は、近年の日本語研究は、従来の国語学の領域のみならず、日本語教育・情報科学・認知科学・通信工学などの広範囲において多様な観点と方法によって展開されている。日本語学会の編集方針からであるかどうかかわからないが、旧『国語学』や『日本語の研究』に掲載されている論文は、その分野のものが少ないように思われる。日本語研究のさまざまな分野をバランスよく取り上げることこそが、最も望ましいことであろう。これと関連して、前国語学会の前代表理事の故徳川宗賢の遺稿(199集)が、示唆に富んでいるので、ここで敢えて引用する。

わが国語学会は、今後世界の日本語研究者たちの中央学会をめざして展開していくべきなのか。あるいは将来創立されるかもしれない国際日本語学会の日本支部(それも特殊支部?一特殊支部としたのは、従来の国語学会の足跡が、日本語研究の全分野をバランスよく覆っていたか、という意味)になろうとするのか。そうではなくて、そうした国際的な変化とは関係なく孤高を持するスタンスを守っていかうとするのか。このあたりに国語学会の未来図を描くにあたっての、一つの岐路がある。

11) ちなみに、1973年に創立された韓国における日本学研究に関する唯一の全国規模の学会である「韓国日本学会」(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では、機関誌『日本学報』(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を、すでに国際専門学術誌への登載を目指して、英語版の機関誌を2001年に刊行、2002年の2月に2冊目を刊行したことがある。レベルは、それほど高くないかもしれないが、その成果を、世界に向けて発信している。なお、欧米や中国・台湾の研究者の投稿を積極的に督励している。残念ながら、英語版の機関誌は、現在休刊になっている。

とある。よく吟味していただきたい。

第四は、「日本語学会」の大きな変化であるが、第202号の展望号から「海外における日本語研究」という項目の設定や、常任査読委員に外国人研究者が加わるようになったことである。そして第201号からは、それまでの機関誌名表記『国語学』が、常用漢字の『国語学』に変わった。また、世界のメジャー言語¹²⁾の中で縦書きを維持しているのは、日本語だけになったと言われているが、長年親しまれてきた既存のスタイルを捨てて〈横書き〉主体になったのは、大きな変化である。さらに雑誌の体裁で要望したいことは、プライバシーの侵害などの問題があるが、検討の上、E-MAILのアドレスも載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う。

第五は、韓国は日本語教育の歴史や日本語教育機関数、教師数、学習者の数の上からみても、斯界の東の横綱である。韓国の日本語学習者は凡そ95万に達し、世界の日本語学習者のおよそ36%を占め、韓国人50人に一人が日本語を勉強している試算になる。ところが、このところ、外国語教育において英語に次いで、第二の位置を占めていた日本語が、中国語に押され気味の傾向にある。韓国の大学ではここ数年、学部制と多重専攻がブームになっている。学部制というのは学部単位で新入生を募集し、二・三年生になる時に専攻を選択するというものである。日本語と中国語をペアにして東洋語学部というような大学が多いが、かつて殆んど同数であった希望者が、中国語6~7割り、日本語3~4割りぐらいに日本語の人气が急激に下ってきている。これは日本の経済が不安定なのに較べ、中国語の方が将来性があるという学生たちの判断の現れといえるでしょう。海外における日本語の教育と研究の活性化のために、海外でも研究大会や発表会を開催してほしい。

蛇足の嫌いもあるが、ちなみに、2000年11月と、2008年7月の2回にわたり、日本の「日本語教育学会」が、韓国の日本語学関係の学会と連携して共同で、それぞれ、ソウルと釜山で日本語教育に関する国際大会を開催したことがある。盛会であった。「日本語学会」も海外での国際大会を企画すべき時期に来ている

12) ある言語の使用者が1億人以上の言語をメジャー言語 (major language) といいますが、日本語も1億2千万人位の母語話者がいるのでメジャー言語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しかし、第2言語 (second language) としての使用者が少ない。

との感を禁じ得ない。

参考文献

- 李漢燮(2002) 『海外における日本語研究—韓国—』, 『国語学』 第53巻 第4号, 国語学会, pp.115-123
- 任栄哲(2009) 「日本における韓国語研究の社会言語学的接近」, 『日本学研究』 第26輯, 檀国大学校日本研究所, pp.387-408
- 大野晋・森本哲郎・鈴木孝夫(2001) 『日本・日本語・日本人』, 新潮社, pp.128-142
- 北原保雄(1993) 「『日本語』か『国語』か」, 『月刊日本語論』 第1巻第1号, 山本書店, pp.4-7
- 京極興一(1996) 「『国語』とは何か」, 東宛社, pp.24-25
- 国語学会編(1995) 『国語学五十年』, 武蔵野書院, p.26
- _____ (1980) 『国語学大辞典』, 東京堂出版, p.371
- 山東功(1999) 「国語学か日本語学か」, 『江戸の思想』10, ベリカン社, pp.131-132
- 清水康行(2000) 「『国語学』という選択」, 『国語学』 第200集, 国語学会, pp.12-14
- 徳川宗賢(1999) 「日本語研究の将来と国語学会」, 『国語学』 第199集, 国語学会, p.19
- _____ (1998) 「社会言語学の創刊にあたって」, 『社会言語科学』 第1巻 第1号, 社会言語科学会, p.1
- 仁田義雄(1995) 「『国語』を考える」, 『江戸の思想』2, ベリカン社, pp.132-143
- 前田富祺(2004) 「機関誌の新名称について(ご報告)」, 『国語学』 第55巻 第3号, 日本語学会, p.116
- 宮島達夫(1994) 「国語国文学科と日本語日文学科」, 『月刊日本語論』 第2巻 6号, 山本書房, pp.44-45
- 森田芳夫(1987) 『韓国における国語・国史教育』, 原書房, pp.122-156
- 安田敏朗(1997) 『植民地のなかの「国語学」—一時枝誠記と京城帝国大学をめぐる—』, 三元社, pp.15-17

❖ 투고일 : 2009. 6. 30

❖ 심사일 : 2009. 7. 16

❖ 심사완료일 : 2009. 7. 28